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성령강림절 후 제4주】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9. 성도여 다 함께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태양의 변함없는 모습처럼 성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부도덕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동일한 시간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귀하게 베풀어주신 시간을 감사히 활용하는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시간을 흔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 소홀히 대하는 이들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매 순간이 주님의 은총에 잇대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자신이 입은 상처는 크게 보면서 상대방이 입은 상처는 작게 보는 우리의 이상한 눈을 고쳐주십시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나 좋을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힘을 많이 가진 이들일수록 모든 말과 행동을 삼가게 하시고 그들의 힘이 파괴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마5:3,4 인도자

♠ 교 독 문 71. 이사야55장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박경선 집사 II. 김재홍 목사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337(통363).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다함께

성경봉독 I. 행8:1-8 하진채 학생

..... II. 창1:26-29 박두석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흠어진 사람들 이성운전도사

..... II. 하나님의 계획 김준우 목사

거둬기도 다함께

- 찬 송 588(통307).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계획하셨습니다. 언제든지 함께 사는 삶을 생각하며 사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다 함 께 : 아멘. 인간중심으로만 살아왔던 지난날을 반성합니다. 결코 우리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변의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아멘.

- ♠ 찬 양<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김준우 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말씀 : 김재흥 목사	기도의 밤
	인도: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고정한 학생 조병무 장로	안 현 학생 박찬정 집사

6월	영접위원	방문성 하현철 윤성종 박효선 허정윤 김윤정
	헌금위원	한상익 문영혜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어리석은 우직함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갑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하2리에 있는 온달산성에서 엽서를 띄웁니다. ……

산중턱에 이르면 사모정(思慕亭)이라는 작은 정자가 있습니다. 전사한 온달 장군의 관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자 평강공주가 달려와 눈물로 달려어 모셔간 자리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산성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평강공주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나는 사모정에서부터 나머지 산성까지의 길을 평강공주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아래로는 남한강을 배수의 진으로 하고 멀리 소백산맥을 호시(虎視)하고 있는 온달산성은 유사시에 백성들을 입보(入保)시키는 성이 아니라 신라에 빼앗긴 실지를 회복하기 위한 전초기지였음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망루나 천수각(天守閣)이 없어도 적병의 움직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조망(眺望)이었습니다. 조령과 죽령 서쪽 땅을 되찾기 전에는 다시 고국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그의 결의가 지금도 느껴집니다.

나는 반공(半空)을 휘달리는 소백산맥을 바라보다 문득 신라의 삼국통일을 못마땅해하던 당신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더 커지는 것이라는 당신의 말을 생각하면 대동강 이북의 땅을 당나라에게 내주기로 하고 이룩한 통일은 분명 더 작아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통일이 아니라 광활한 요동 벌판의 상실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실감은 온달과 평강공주의 애절한 사랑의 이야기와 더불어 이 산성을 찾은 나를 매우 쓸쓸하게 합니다.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는 부(富)를 축적한 당시의 평민계층이 지배체제의 개편과정에서 정치·경제적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사회변동기의 사료(史料)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보 온달’이란 별명도 사실은 온달의 미천한 출신에 대한 지배계층의 경멸과 경계심이 만들어낸 이름이라고 분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창작하고 그후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서 승낙한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를 믿습니다. 다른 어떠한 실증적 사실(史實)보다도 당시의 정서를 더 정확히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완고한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미천한

출신의 바보 온달을 선택하고 드디어 용맹한 장수로 일어서게 한 평강공주의 결단과 주체적 삶에는 민중들의 소망과 언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달설화가 당대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한 농촌청년의 우직한 충절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능성은 이처럼 과거를 뛰어넘고 사회의 벽을 뛰어넘어 드디어 자기를 뛰어넘는 비약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강공주와 함께 온달산성을 걷는 동안 내내 ‘능력 있고 편하게 해결 사람’을 찾는 당신이 생각났습니다. ‘신데렐라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당신이 안타까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평가되는 능력이란 인간적 품성이 도외시된 ‘경쟁적 능력’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낙오와 좌절 이후에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한마디로 숨겨진 칼처럼 매우 비정한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의 품속에 안주하려는 우리의 소망이 과연 어떤 실상을 갖는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사람은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당신이 먼저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세상에 잘 맞추는 사람인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야말로 어리석게도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세상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으로 인하여 조금씩 나은 것으로 변화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직한 어리석음, 그것이 곧 지혜와 현명함의 바탕이고 내용입니다. ‘편안함’, 그것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함은 흐르지 않는 강물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은 흐르는 강물입니다. 흐르는 강물은 수많은 소리와 풍경을 그 속에 담고 있는 추억의 물이며 어딘가를 희망하는 잠들지 않는 물입니다.

당신은 평강공주의 삶이 남편의 입신(立身)이라는 가부장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산다는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림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 공주가 아니기 때문에 평강공주가 될 수 없다고 하지만 살림이란 ‘뜻의 살림’입니다. 세속적 성취와는 상관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평강공주의 이야기는 한 여인의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은 ‘삶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이 언젠가 이 산성에 오기를 바랍니다. 남한강 푸른 물굽이가 천년세월을 변함없이 감돌아 흐르는 이 산성에서 평강공주와 만나기를 바랍니다.

- 신영복, 『나무야 나무야』 중에서

민물장어의 꿈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꺾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두고 온 고향 보고픈 얼굴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
고갤 흔들며 지워버리며 소리를 듣네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 하는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를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다가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익숙해 가는 거친 잠자리도
또 다른 안식을 빚어 그 마저 두려울 뿐인데
부끄러운 게으름 자잘한 욕심들아
얼마나 나일 먹어야 마음의 안식을 얻을까
하루 또 하루 무거워지는 고독의 무게를 참는 것은
그보다 힘든 그보다 슬픈 의미도 없이
잊혀지긴 싫은 두려움 때문이지만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를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으며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아무도 내게 말해 주지 않는 정말로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

- 신해철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우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해경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박옥식 김춘려 구명자 김윤수 박상호 김혜권 박규석 박경선 박영희
오자영 임고은 임승동 백혜숙 조병주 전월수 최종원 김준호 곽해자
조병부 송양진 무명

월정헌금:

김수진 김승현 김순자 박준희 이기분 송의섭 송임회 이소순 이유선
방극숙 이은자 이정은 하현철 최성애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임원민
임수연 황의일 문홍일 권미정 백성래

감사헌금:

윤정덕 구성실 문금석 김종수 이순정 한 훈 배근수 김금순 권채영
박정숙 최종훈 김금하 이유일 김미희 김필순 김용진 무명4

녹색꿈 헌금:

김준우 김철수 무명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정두리	장혜숙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김미순	김윤수
안디옥	임정자	임정자	이은옥	이재문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김진경	이명희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문금석	진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백묘현	문금석
시온	박효선	허정윤	홍복선	김정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이갑재	최희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유영남	오복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임영선	황선희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오현정	정현주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정영선	김희우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유경순	송양진
고린도	이영란	이영란	윤정화	방극숙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조항미	박혜경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분기점** : 어느덧 한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감사와 소망으로 시간을 채워가십시오.
2. **임원회** : 2부 예배 후에 예배실에서 6월 정기 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3. **기도의 밤** : 이번 주 수요집회는 7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4. **냉난방헌금** : 맥추감사주일인 다음 주일(7월 5일)에 냉난방비 헌금을 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5. **특강** : 다음 주일 오후 집회는 강명순 목사님(신나는 조합이사)을 초청하여 '소액 대출사업'에 대한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 **판매** : 여선교회에서 감자와 오이지를 판매합니다. 감자는 5kg에 5,000원, 오이지는 세 개에 2,000원입니다.
7. **담임목사** : 독일에 가셨던 담임목사님은 이번 주 수요일(7월 1일) 새벽 5시 3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예정입니다.
8. **신앙실천** :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에어컨보다는 선풍기를 이용하며 더위를 이기길 바랍니다.

* 식당 봉사 : 다메섹 속 (다음 주 : 다메섹 속)

* 설거지 봉사 : 한상익 이준하 (다음 주 : 곽상준 최경미)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